

## 전기요금 인상 · LNG 수급불안 ‘도마’ 지경위, 전체회의서 공기관 협안질의

6월 임시국회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및 연료비 연동제, 중장기 LNG 확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비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기관 협안업무 질의를 가졌다.

먼저 전기요금 현실화 및 연료비 연동제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됐다.

이종혁 의원은 한국전력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가정용보다 저렴한 산업용부터 순차적으로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기 사용 상위 100위 기업 중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인데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렴한 요금을 유지하고 대기업부터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세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화수 의원은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의원은 “전기요금 현실화가 논의 중인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의원은 “전기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서민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인상하지 않는 게 더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서민경제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연가스 수급 문제도 지적됐다.

조정식 의원은 “현재 국제 LNG 시장이 수요증가로 물량이 떨어

수급 불안이 예상되며 도입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제 곧 인도네시아 장기계약이 종료되는 데 신규 장기계약 추진은 잘 되고 있으나 우려도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인데 한 두달 내에

신규 장기계약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일본 원전사태로 인해 원전정책이 재검토되고 있는 등 앞으로 천연가스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그만큼 가스공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중장기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부채비율 문제도 거론됐다.

이종혁 의원은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이 기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의원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2012년이면 부채비율이 400%가 넘어 회사체 밸런스 힘들어지는 것 아니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강수 기스공사 사장은 “부채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미수금과 해외투자 증가 때문”이라며 “부채비율이 400%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현재 시점이 해외 자원개발의 적기여서 해외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척 LNG저장탱크(10~12호) 토목 및 철골설계 입찰문제도 제기됐다.

김태환 의원은 “최근 삼척 LNG저장탱크 설계 입찰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재입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세계 최초로 개발해 적용하는 27만㎘ 저장탱크 토목 및 철골설계 입찰로 지진관련 기능도 상향했기 때문에 토목(토목기술사)이 중요한데 한국 가스기술공사는 조건이 안 돼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곧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재입찰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종수 기자 jsllee@tenews.kr

### 지경부, 비축유 346만배럴 방출 결정

지식경제부는 24일 우리나라 석유 비축유 346만배럴을 방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IEA 차원에서 최근 국제 석유수급 차질에 대한 대응조치(IERP, 비상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비축유 방출조치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번 방출조치에 따라 IEA 회원국(12개국 참여 예상)이 총 6,000만배럴을 방출할 예정이다.

현재 사우디 등 일부 OPEC 국가가 증산압력을 하고 있으나 계절적 수요증가를 반영한 공급부족분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단기적인 수급차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비축유 방출이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김원규 기자 wgkim@tenews.kr

### 부안 국내 최초 신재생단지 완공

#### 풍력 · 태양광 · 연료전지 복합단지 조성

전라북도가 국내 최초로 부안에 신재생에너지 기업육성을 위한 복합단지를 완공했다.

전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인 부안군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완공돼 시험운전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지 조성은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일대 35만여㎡ 부지에 1,050억원이 투입돼 진행됐으며 2004년 착공 이후 7년 만에 완공됐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3대분야 성능 평가·연구를 하는 실증연구단지가 조성돼 향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거점

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안 복합단지는 테마체험단지, 실증연구단지, 연구산업단지로 나눠 운영된다.

오는 7월1일 개장되는 테마체험단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성됐다.

실증연구단지는 연구기관의 구축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 확충해 적은 투자로 국제인증·실증능력을 갖춘 국제적 수준의 테스트베드로 구축된다.

태양광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북대 소재개발센터가 참여해 46종의 시험장비와 전문인력 20명으로 향후 200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송명규 기자 mgsong@tenews.kr

풍력은 120억원을 투자해 5㎿급 대규모 풍력실험동을 조성했으며 한국기계연구원이 향후 9종의 장비 보강을 통해 국제적 역량을 갖춘 테스트베드로 구축해나가는 한편 호남광역경제권선도사업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사업과 지경부 R&D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는 77억원이 투입돼 올 하반기까지 200㎾급 수송·고정형 대형시스템까지 개발이 가능한 시설로 구축된다.

이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연료전지 종합특성 평가를 수행해 국제 인증수준을 갖춘 실증평가 기반을 조성한다.

전북도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업·연구단지와 연계해 한국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송명규 기자 mgsong@tenews.kr

가스산업 경쟁 도입 법안 또 계류 … 6면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 … 12면



〈연간 특별기획〉 ‘강소&리딩기업’을 소개합니다



## 태양광인버터 절대 강자 국내 1위 넘어 해외시장 적극 진출

(주)다쓰테크



“인간존중, 기술제일, 세계중심의 기업 3대 운영철학으로 태양광인버터 국내점유율 1위 기업을 넘어서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겠습니다”

김만희(주)다쓰테크 대표는 태양광인버터 기업의 선두주자로서 기술과 인간을 중요시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다쓰테크는 2006년 설립된 신재생에너지관련 전력전자 전문기업으로 국내 태양광 인버터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매출액의 3%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내 5건, 미국 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금 대표는 “국내 기업 최초로 500㎾ 태양광인버터를 개발해 한국전기연구원 성능검사를 합격했다”라며 “현재 양산에 들어간 만큼 빠른시간 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나설 것”이라고 올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밝혔다.

다쓰테크는 현재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일반 보급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에 태양광인버터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금 대표는 “국내시장과 국토면적이 협소해 성장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라며 “내년에는 테스트베드로 삼아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벌판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다쓰테크는 지난해 중국 강소성에 생산공장을 짓는 바 있고 호주시장에 태양광인버터 100대를 수출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무변압기형 1㎿급 인버터는 250㎾급 인버터 4개가 결합돼 일조량이 높은 낮 시간대에는 1~2개만 결합해 일조량이 되고 일조량이 낮은 시간대에는 인버터의 가동 개수가 늘어나는 등 효율적으로 작동돼 부하율이 높고 개별관리가 가능해 장비유지가 쉬운 장점이 있다.

금 대표는 “에프터서비스가 아닌 먼저 찾아가는 비포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영남과 호남에 고객센터를 개설했다”라며 “인버터가 태양광발전소의 허브이므로 향후에도 사전점검관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히 나설 계획을 밝혔다.

김원익 기자 wikim@tenews.kr

## 여름철 무정전 전력공급, KEPCO가 이뤄가겠습니다

장마, 태풍, 하계부하 등에 대비하여 한국전력은 열화상기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철저한 전력설비 점검으로 전력설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여름철 전력설비피해 예방 요령

- 전력선 인근의 수목집족이 예상되는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력설비 인근의 작업은 가급적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압아파트 구내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굴착의 경우 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에 유의하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 폭우 등으로 철탑주변 및 절개지 등의 지반유실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